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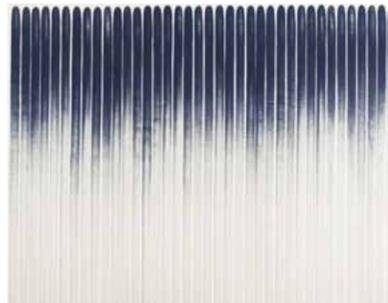
파블로 피카소 작 '모자 쓴 여인'



김기창 작 '군마도'



클로드 모네 작 '위털루 다리'



이우환 작 '선으로부터'

서울과 달리 좀처럼 대형 전시회가 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모네, 피카소, 천경자, 김기창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서양과 한국의 걸작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전북과 전남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겨울의 문턱, 모네의 '위털루 다리', 김기창의 '군마도'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전북도립미술관 - '열정의 시대-피카소부터 천경자까지'

여수 예술마루 - '교과서에서 만나는 천재화가들'

이 명작들, 안보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전북도립미술관 '열정의 시대'=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에서는 '열정의 시대 : 피카소부터 천경자까지'가 열리고 있다.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인상파 작가인 모네와 피사로, 입체파인 피카소와 브라크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 베를린 분리의 대표작가 막스 리버만을 비롯한 모더니즘 형성기의 작품들, 이와 대비되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오지호, 진환 등 한국의 모더니즘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품은 베네수엘라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미술관 소장품 34점, 독일 브뢰한미술관, 무터푸라주켈러리 소장품 51점,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소장품 18점 등 세계 유수 미술관 소장품 104점으로 구성됐다.

베네수엘라 국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피카소 등 입체파 작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거장전이 가능한 대형 미술관으로 100여 년 역사에 직결된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카소의 '모자 쓴 여인'과 모네의 '위털루 다리' 등 베네수엘라 국립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을 만날 수 있다.

고전적인 작품 가운데는 140년 전 프랑스 작가인 오라스 드 카이아스의 '목욕하는 여인'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는 ▲인상주의 이전 유럽 전통 회화 ▲벨 에포크를 수놓은 인상파 ▲모더니즘의 정점인 피카소와 큐비즘 ▲한국미술의 모더니즘 등 19



오라스 드 카이아스의 '목욕하는 여인'

세기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시대별, 주제별로 구성됐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말 이후 등장한 감각적, 추상적, 초현실적 경향의 미술운동을 말한다.

전시는 내년 2월22일까지다. 티켓 가격 성인 1만 원(학생 6000원), 문의 063-290-6888.

◇예술마루 '교과서 속 우리 미술'=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됐던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여수에서 열리고 있다.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는 오는 12월 28까지 '교과서 속 우리 미술-교과서에서 만나는 천재화가들'이 열린다.

초·중·고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근·현대 미술 도판에 수록된 작가 41명의 작품 89점을 한 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에서는 김기창, 박수근, 천경자 등 한국 미술계에 한 획을 그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실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 '모던 아트의 수용과 전개'는 일제시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변혁기 예술로 김기창, 도상봉, 박수근, 변관식, 이인성, 이응노, 장욱진, 전혁림, 천경자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2부 '한국현대미술의 태동과 확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 이후의 추상미술과 신조형 미술을 다루며 박서보, 서세옥, 이우환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우환의 '가죽'은 화면 중앙에 화합을 상징하는 거북이 위치해 있고 음영이 없는 색채 대비로 밝고 명랑한 화면을 구성한 작품이다. 천경자의 '무제'는 인도 북부 도시 아그라에서 춤을 추는 여인의 초상을 그린 작품으로 이국에 대한 환상과 동경, 초현실주의적인 꿈의 세계 등 장식적이고 탐미적인 작가 특유의 조형세계를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이우환의 '선으로부터', 김창열의 '물방울', 박성광의 '무녀', 변관식의 '강변산수도', 이대원의 '농원'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이다. 티켓 가격 8000원.

전시와 함께 주말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나만의 문자추상', '우리 색으로 만나는 현대미술' 등 어린이 미술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비 1만5000원(관람료 포함). 문의 061-808-708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리가꼭부르기 70회 '시인 박원자의 노래'

21일 호신대 티브라운

광주전남우리가꼭부르기(회장 황선숙)는 매달 한차례씩 모여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부른다. 지난 2008년, 가곡을 좋아하는 이들 몇몇이 힘을 모아 모임을 구성후 힘든 상황에서 집행부와 회원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매달 꾸준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시인 박원자(유안초 교사)씨 역시 작은 힘을 보탠 이 중 한명이다.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에서 열리는 70번째 우리가꼭 부르는 '시인 박원자의 노래'를 주제로 열린다. 2003년 등단한 박 시인의 작품은 여러 편이 노래로 만들어졌으며 '하늘빛 너의 향기'와 '하얀 겨울로 간다'가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박원자 시인

이번 달에는 오숙희 곡 '독도, 너는 동해에서 있구나'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유안초 2학년 2반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사랑의 정원'을 부른다. 또 초청 성악가 소프라노 김선희씨가 '그대는 내 사랑의 시'를, 남구여성합창단(지휘 박호진)이 '푸른 꿈을 꾸는 새' 등을 연주한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는 '반달', '이별의 노래' 등이다.

참가자에게는 박 시인의 시노래 모음집(가곡집) '그대는 내 사랑의 시'를 증정한다. 참가비 1만 원을 내면 간단한 먹을거리와 차를 준다. http://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락(樂) Concert-Let's make 락' 공연 2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에스닉 팝그룹 '프로젝트 락'

'신명나는 국악에 화려한 비보잉까지.' 광주문예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 '락(樂) Concert-Let's make 락'이 22일 소극장에서 열린다.

여민이 제작·기획한 이번 공연은 '즐거움 국악, 흥겹고 신나는 우리 음악의 소통'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악 대중화를 위해 결성한 에스닉 팝그룹 '프로젝트 락'이 우리 음악을 어쿠스틱 사운드로 들려준다. 가야금, 베이스, 건반, 피리, 해금, 대금, 보컬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락은 직접 작곡, 편곡, 프로듀싱을 하는 그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수궁가를 코믹하게 재해석한 '난감하네', 가면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한오백년', 'Happy', 'Beatbox', '사랑가', '오봉산타령', '아빠무등', '밀양아리랑', '태평성대', '이몽룡아' 등 다양한 장르의 신명나는 곡을 공연한다.

국악비보이 그룹 '플라잉 코리안'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613-83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